



우리나라 혼인율 급락의 구조적 특징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 연령대별 혼인율 추이를 보면 2010년대 중반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을 미루는 만혼 현상이 발견되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
 - 연령대별 혼인율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20대에서는 혼인율이 낮아지고, 30대에서는 혼인율이 높아지는 만혼 현상이 나타남
 -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20대의 혼인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0대의 혼인율 상승세는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남
- 출생 연도별 혼인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83년생 이전까지는 만혼 현상이 발견되지만 84년생 이후부터는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83년생까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20대에서는 혼인율이 낮고 30대에서는 혼인율이 높아지는 만혼 현상이 나타남
 - 그러나 84년생 이후에는 전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혼인 성향에 있어 세대가 단절되는 코호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최근의 혼인율 하락 현상은 무배우자들의 일반적인 성향 변화가 아니라 혼인 성향이 다른 84년 이후 출생자들이 혼인 적령기에 진입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혼인 감소가 특정 세대의 차별화된 성향 변화에 기인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
 - 또한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가정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 기피가 만연하는 것은 사회 복지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80년대 중반 이후 세대는 혼인 이외의 영역에서도 이전 세대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산업도 이러한 특성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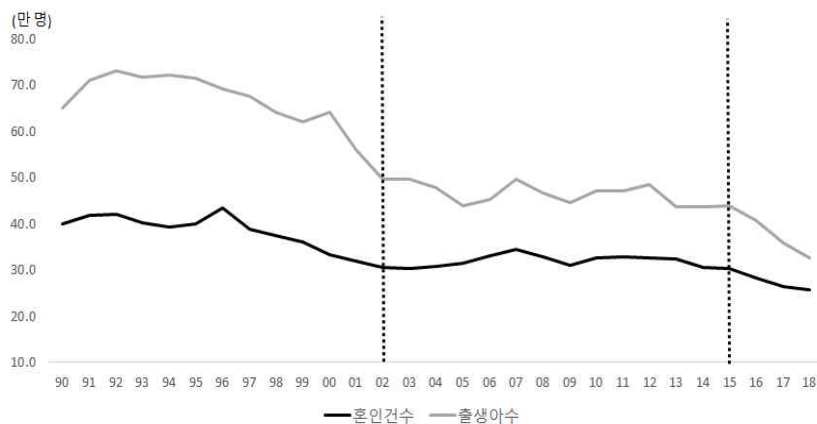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출생아 수 급감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혼인 감소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는 모두 2002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2015년을 전후하여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 본고는 우리나라 혼인 감소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혼인을 변화가 성별, 연령별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세대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논의해보고자 함

- 첫째, 성별, 연령대별 혼인율 추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혼인 감소가 어떠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만혼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해보고자 함
- 둘째, 상기의 특징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공유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코호트 효과¹⁾에 의한 것인지 논의하고자 함
 - 특히, 핵심 변수인 혼인율이 '결혼에 대한 적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개념인 '인구 대비 혼인 건수'가 아닌 '무배우자 대비 혼인 건수'²⁾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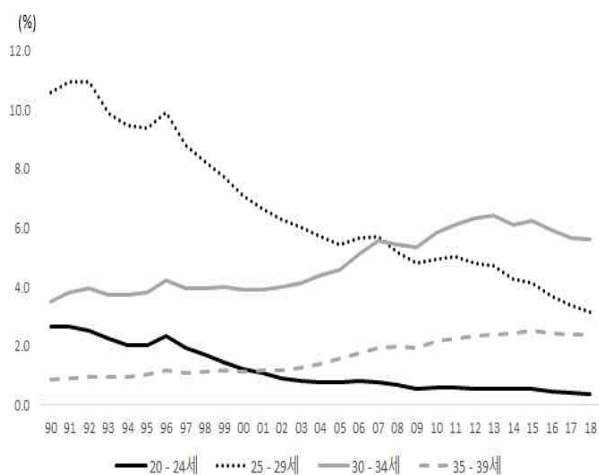
1) 특정 세대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해 연대를 느끼면서 다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행위 양식을 갖는 것을 의미함
 2) 우리나라는 중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인구 수 보다는 무배우자 대상으로 혼인율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

2. 연령대별 혼인율 변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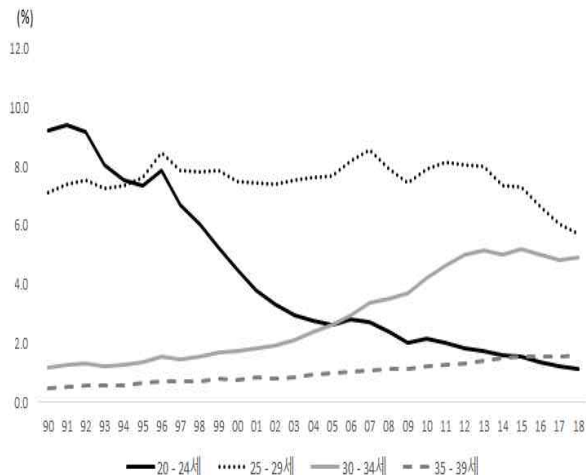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연령대별 혼인율³⁾ 추이를 보면, 2010년대 중반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을 미루는 만혼 현상이 발견되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25~29세)의 혼인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30대 초반(30~34세)의 혼인율은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20대 후반(25~29세)의 혼인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30대 초반의 상승세는 사실상 소멸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20~24세)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대 후반은 보합세, 30대 초반의 혼인율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30대 초반의 혼인율 상승세는 정체되고 20대 후반의 혼인율은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됨(그림 3) 참조)
- 낮은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낮아지고 높은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혼인을 미루는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높은 연령대의 혼인율 상승세도 소멸되고 있어 혼인에 대한 적극성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연령대별 남성 혼인율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연령대별 여성 혼인율



자료: 통계청, KOSIS

3) 일반적으로 혼인율은 인구 천명당 혼인 건수를 사용하지만 본 보고서는 비율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 백명당 혼인 건수로 표기하였음

3. 세대별 혼인율 변화의 특징



■ 혼인율 변화의 특징이 세대별(출생 연도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출생 연도별로 24세에서 35세까지 각 연령별 혼인율을 비교하였음

- <표 1>과 <표 2>는 출생 연도별로 혼인율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혼인에 대한 적극성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76년생(현재 44세)의 경우 24세 때 남성 100명 중 2.83명이 혼인하였으나, 88년생(현재 32세)의 경우는 24세 때 1.09명만이 혼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음영은 전년도 출생자보다 같은 연령에서 혼인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좌측 열의 동일한 행보다 혼인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음영이 없으면 전년도 출생자보다 같은 연령에서 혼인율이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함

■ 83년생(현재 37세) 이전까지는 혼인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이 발견되지만, 84년생(현재 36세)부터는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코호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1>과 <표 2>를 보면 83년생까지는 20대 중반의 혼인율이 출생 연도가 지날수록 하락하고, 30대의 혼인율은 상승하는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1> 출생 연도별 남성 혼인율 추이

구분	76년생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24세	2.83	2.56	2.22	1.84	1.71	1.53	1.62	1.57	1.41	1.18	1.24	1.19	1.09
25세	4.02	3.72	3.32	2.79	2.71	2.64	2.54	2.33	2.04	1.94	1.95	1.74	1.69
26세	5.72	5.47	4.97	4.53	4.73	4.40	3.85	3.47	3.45	3.25	3.00	2.92	2.66
27세	6.50	6.20	5.89	6.06	6.09	5.23	4.70	4.83	4.67	4.33	4.21	3.79	3.70
28세	6.77	6.82	7.09	7.08	6.53	5.74	5.93	6.12	5.85	5.76	5.24	4.97	4.53
29세	7.63	8.22	8.42	7.70	7.21	7.33	7.58	7.59	7.57	6.90	6.57	6.09	5.62
30세	7.37	7.80	7.26	6.93	7.38	7.43	7.74	7.77	7.22	7.33	6.55	6.16	5.81
31세	6.68	6.54	6.21	6.76	7.01	7.08	7.22	6.97	7.10	6.77	6.13	5.98	-
32세	5.51	5.49	5.89	6.12	6.26	6.50	6.14	6.42	6.05	5.71	5.50	-	-
33세	4.46	4.88	5.10	5.23	5.41	5.17	5.28	5.19	4.99	4.94	-	-	-
34세	3.99	4.16	4.40	4.40	4.26	4.39	4.29	4.14	4.16	-	-	-	-
35세	3.32	3.42	3.52	3.39	3.48	3.39	3.35	3.39	-	-	-	-	-

주: 추계인구와 혼인 건수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 83년생까지는 남성, 여성 모두에서 음영이 20대보다는 30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만혼 현상이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우상향하는 음영의 패턴은 동일한 연도에 다수의 세대가 공통의 추이를 보였음을 의미함⁴⁾
- 반면, 84년생부터는 전년도 출생자들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연령에서 전세대보다 혼인율이 낮아지는(음영이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뚜렷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세대부터 혼인에 대한 적극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함
-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에게서도 84년생부터 음영이 급격히 희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장에서 소개한 연령대별 혼인율의 변화는 해당 연령대의 혼인 성향이 전반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성향이 다른 84년생 이후 세대들이 해당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 다른 혼인 성향이 84년생 이후 남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세대부터 차별화된 코호트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2〉 출생 연도별 동일 연령대 여성 혼인율 추이

구분	76년생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24세	8.64	7.46	6.75	5.80	5.25	4.55	4.83	4.67	4.07	3.49	3.55	3.48	3.31
25세	9.60	9.04	8.34	7.27	7.10	6.79	6.77	6.02	5.25	5.17	5.03	4.83	4.66
26세	9.93	9.75	9.63	8.91	9.45	9.14	8.10	7.45	7.67	7.45	7.06	6.85	6.42
27세	9.03	9.15	9.04	9.70	10.10	8.95	8.44	8.84	8.86	8.74	8.52	7.64	7.79
28세	7.36	7.96	8.48	9.05	8.80	8.12	8.92	9.39	9.30	9.40	8.58	8.43	7.96
29세	6.39	7.11	7.97	7.77	7.71	8.46	9.02	9.35	9.59	9.03	8.90	8.35	7.82
30세	5.23	5.84	5.88	6.07	6.71	7.19	7.80	8.02	7.68	7.96	7.30	6.91	6.88
31세	4.32	4.58	4.61	5.16	5.73	6.03	6.38	6.39	6.53	6.29	5.83	5.83	-
32세	3.41	3.53	3.94	4.33	4.59	4.96	4.89	5.24	5.10	4.92	4.67	-	-
33세	2.66	3.02	3.22	3.56	3.75	3.73	3.95	3.93	3.77	3.91	-	-	-
34세	2.29	2.55	2.65	2.80	2.88	3.04	3.01	3.03	3.06	-	-	-	-
35세	1.89	2.06	2.13	2.28	2.31	2.30	2.29	2.36	-	-	-	-	-

주: 상동

4) 2006년의 경우 76년생은 30세, 77년생은 29세, 78년생은 28세, 79년생은 27세, 80년생은 26세이며 이들은 모두 전년도 출생자의 해당 연령에서 혼인율이 더 높게 나타나 우상향의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에 2005년보다 전반적으로 혼인율이 높았음을 의미함

4. 세대별 무배우자 혼인율 변화의 특징



■ 본장에서는 ‘인구 기준 혼인율’로 표기된 <표 1>과 <표 2>를 ‘무배우자 기준 혼인율’로 재구성하여 세대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 유배우와 무배우자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인구 기준 혼인율’보다는 ‘무배우자 기준 혼인율’이 혼인에 대한 적극성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것임
 - 예를 들어, A 그룹(무배우자 100명)과 B 그룹(유배우자 60명, 무배우자 40명)에서 혼인 건수가 각각 20건 발생했다면 B 그룹이 결혼에 더 적극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 혼인율’은 A, B 모두 20%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무배우자 기준 혼인율’은 B 그룹이 50%로 더 높게 나타남
- 본장은 연령별 혼인, 이혼 통계 수집이 가능한 75년생부터 출생연도별, 연령별 무배우자 인구⁵⁾를 추정하였음⁶⁾

■ 무배우자 기준 혼인율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전장에서 나타난 혼인율 변화의 특징이 유사하게 발견되었으며, 특히, 84년생 이후의 코호트 효과는 보다 확실하게 확인되었음

- <표 3>과 <표 4>는 인구 기준 혼인율로 구성된 <표 1>과 <표 2>의 무배우자 기준 혼인율을 적용한 것임
- 83년생까지는 남성, 여성 모두에서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연도의 혼인율 변화 추이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우상향의 음영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 84년생부터는 음영이 사라지면서 이전 세대 특징과 단절되는데, 이는 84년생부터 혼인과 관련한 강력한 코호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84년생은 현재 36세에 불과하고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8년 기준 통계에서는 34세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해당 세대의 행태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핵심적인 혼인 연령인 30대 중반까지의 혼인율을 통해서 볼 때 84년생 이후 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무배우자 비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5) 연령별 유배우자 비율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계 인구와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및 이혼 건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따라서 5년에 1회 실시하는 센서스 조사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본고는 출생연도별로 각 연령에서의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인구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15세부터 혼인 건수에서 이혼 건수를 차감한 값을 누적하여 유배우자 인구를 산출하였음. 같은 출생 연도라 하여도 사망, 이민 등의 이유로 인구가 변화하는데,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인구에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산출값을 보정하였음

〈표 3〉 출생연도별 무배우자 기준 남성 혼인율 추이

구분	76년생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24세	3.07	2.75	2.35	1.93	1.79	1.59	1.68	1.64	1.46	1.22	1.28	1.23	1.12
25세	4.54	4.14	3.65	3.01	2.90	2.82	2.71	2.48	2.16	2.05	2.05	1.82	1.77
26세	6.87	6.46	5.76	5.13	5.34	4.92	4.27	3.82	3.78	3.53	3.25	3.15	2.85
27세	8.41	7.85	7.28	7.33	7.35	6.19	5.48	5.61	5.39	4.93	4.76	4.25	4.12
28세	9.50	9.37	9.55	9.33	8.50	7.25	7.39	7.61	7.19	7.00	6.28	5.88	5.30
29세	11.89	12.66	12.67	11.20	10.29	10.15	10.38	10.36	10.22	9.09	8.51	7.73	7.01
30세	12.85	13.46	12.14	11.09	11.67	11.39	11.76	11.79	10.73	10.64	9.20	8.44	7.80
31세	12.98	12.55	11.42	12.05	12.35	12.05	12.22	11.73	11.70	10.81	9.37	8.88	
32세	11.81	11.55	12.01	12.11	12.20	12.30	11.51	11.99	10.98	9.97	9.11	-	
33세	10.36	11.29	11.42	11.35	11.64	10.74	10.81	10.60	9.86	9.35	-	-	
34세	10.06	10.47	10.70	10.43	9.93	9.88	9.49	9.13	8.85	-	-	-	
35세	8.98	9.18	9.20	8.65	8.65	8.10	7.91	7.97	-	-	-	-	

주: 추계 인구와 「인구 동향 조사」의 혼인 및 이혼 건수를 바탕으로 산출함

〈표 4〉 출생연도별 무배우자 기준 여성 혼인율 추이

구분	76년생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24세	12.60	10.20	8.80	7.17	6.31	5.30	5.60	5.38	4.66	3.96	4.01	3.93	3.73
25세	16.04	13.90	12.06	9.79	9.26	8.55	8.46	7.42	6.35	6.19	6.00	5.73	5.50
26세	19.50	17.34	15.95	13.48	13.95	12.91	11.18	10.04	10.16	9.74	9.12	8.80	8.15
27세	20.91	19.00	17.32	17.04	17.29	14.31	13.03	13.38	13.19	12.78	12.26	10.78	10.89
28세	19.85	19.35	19.06	18.56	17.48	14.74	15.77	16.40	15.85	15.79	13.92	13.36	12.41
29세	20.07	20.38	21.20	18.59	17.68	17.86	18.66	19.14	19.27	17.63	16.63	15.06	13.73
30세	18.96	19.33	17.94	16.54	17.72	17.57	18.82	19.26	17.94	18.09	15.53	14.04	13.57
31세	17.58	17.16	15.65	15.91	17.30	16.86	17.73	17.71	17.57	16.44	13.92	13.24	-
32세	15.32	14.46	14.80	14.97	15.48	15.70	15.30	16.50	15.58	14.36	12.31	-	-
33세	12.74	13.43	13.16	13.46	13.93	13.01	13.64	13.68	12.65	12.55	-	-	-
34세	11.60	12.12	11.52	11.43	11.50	11.48	11.24	11.43	11.11	-	-	-	-
35세	9.96	10.31	9.75	9.89	9.72	9.24	9.04	9.43	-	-	-	-	-

주: 상동

5. 시사점



- 혼인 감소는 향후 우리나라 복지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러한 현상이 특정 세대의 차별화된 성향에 기인한다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울 것임
 - 혼인 급감이 코호트 효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결 방안도 쉽게 모색하기 어려울 것임
 -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84년생 이후 세대에 구분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고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가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혼인 기피가 만연하는 것은 사회 복지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일본의 이른바 8050 문제나 무연고 1인 가구 문제 등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예상보다 심각하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80년대 중반 이후 세대는 혼인 이외의 영역에서도 이전 세대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산업도 이러한 특성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 80년대 중반 이후 세대는 이른바 N세대라고 불리며 이전 세대와 달리 IT 환경에 매우 익숙하고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로 극심한 교육 경쟁 속에서 성장한 세대임
 - 보험 산업의 입장에서는 IT를 활용한 비대면 채널의 활용, 1인 가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보장 수요 증대 등 N세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인 가구는 건강, 요양 등과 관련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관련 보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kiri**